


보도자료		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
배포 일자	2019. 5. 2.(목)	
자료 문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- 김한나 연구원(051-797-4588, h.kim@kmi.re.kr)- 한기욱 연구원(051-797-4902, hankiuk@kmi.re.kr)- 임정희 센터장(051-797-4591, imkh@kmi.re.kr)	
배포 부서	• 기획조정본부 홍보출판실(051-797-4381, 4383)	
보도 일시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, www.kmi.re.kr		

브렉시트, 관세·인증·통관에서의 변화 예고

- 영국의 EU탈퇴를 앞둔 현재, 영국 및 EU, 한국의 수산물 교역 시장 동향 -
 - KMI, 「K·Fish Around The Globe」 Vol.13」 발간 -

- 한국해양수산개발원(원장 양창호, 이하 KMI) 해외시장분석센터는 ‘브렉시트와 세계 수산물 교역’, ‘2019년 아태지역 가공 시푸드 트렌드 동향’ 등 국내외 수산물 및 수산식품 최신 동향 정보를 담은 「K·Fish Around The Globe」 Vol.13을 발간하였다.
- 브렉시트는 영국이 EU로부터 탈퇴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2016년부터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. 탈퇴 시점 및 방법과 관련해서는 3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부결된 상황이다. 이에 영국의 EU 탈퇴 시한 역시 최장 10월 31일까지로 연기되었다.
- 영국의 연간 수산물 교역액은 68억 달러로 수입중심형 교역 구조를 지니고 있다. EU 내 국가로는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있고, 비EU국가로부터는 수입을 더 많이 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.

영국은 우리나라의 23위 수출국으로서 우리나라와 영국 간 수산물 교역액은 5천 6백만 달러에 이른다. 우리나라는 김, 참치, 굴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, '17년 대비 '18년 수출은 14.9% 상승하였다.

□ 영국은 EU 수산물 교역과 관련된 21개 품목에 대한 임시관세율을 발표하고,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간 미래관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브렉시트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. 그러나 기본적으로 브렉시트는 관세를 비롯하여, 인증 및 표준, 통관 등에서의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, 우리는 관련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.

□ KMI 해외시장분석센터는 국내 수산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. 「K·Fish Around The Globe」 Vol.13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자료 신청은 KMI 해외시장분석센터(☎1644-6419, 이메일 kfic@kmi.re.kr) 혹은 수산물수출정보포털(www.kfishinfo.net)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 <끝>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김한나 연구원(051-797-4588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K·FISH

AROUND THE GLOBE

수산물수출길라잡이 KMI 해외시장분석센터

KMI 해외시장분석센터 심층 기획
일본 수산물 시장 동향

AROUND
THE GLOBE



- 01 / 해외 신시장 동향
일본 수산물 시장 동향
- 02 / 전문가 PICK
2019년 아시아지역 가공 시푸드 트렌드 동향
- 03 / 트렌드 포커스
브렉시트와 세계 수산물 교역
- 04 / 수출 현장 리포트
· 국제 인증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현장 탐방
· 2018 프랑스 국제식품박람회 현장 탐방기
- 05 / 주요국 통관 정보 분석
- 중국편
- 06 / 동계로 보는 세계 수산물 시장
동계로 파헤쳐보는 유럽연합의 수산물 교역 구조

[부록] 2019 국제 전자·박람회(수산물·수산식품 / 식품·식품가공 / 관련산업 / 무역)



해양수산부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
해외시장분석센터